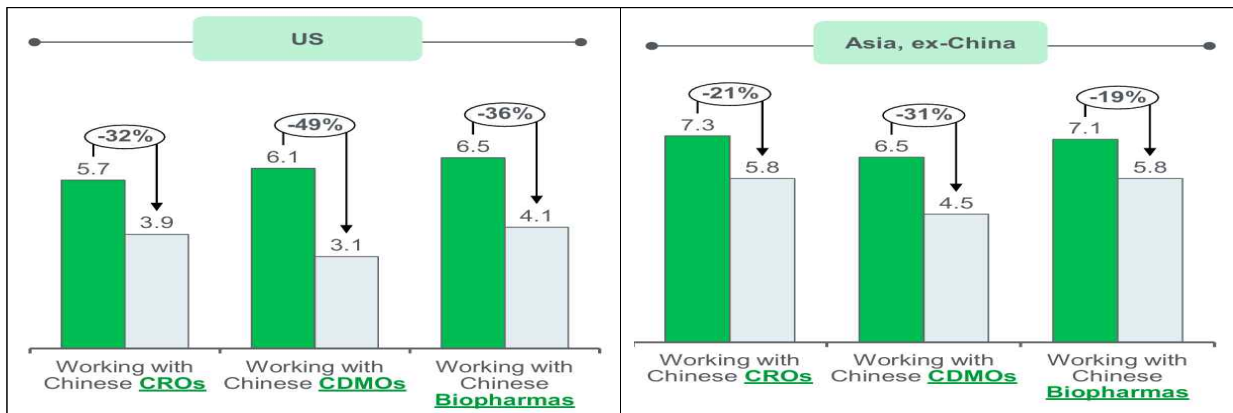


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중국 기업의 신뢰도에 미친 영향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- 7월 2일, 글로벌 전략컨설팅기업인 LEK Consulting이 2024년 6월 바이오제약기업, CRO/CDMO, 투자자 등 73개 생명과학 관련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함.
 - 이는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되기 전과 후에 중국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도를 0(매우 낮음)에서 10(매우 높음) 구간으로 응답자들이 평가한 결과임.
- 응답 분석 결과, 글로벌 생명과학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였고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나,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.
 -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신뢰도가 30%~50% 하락했으며, CDMO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음.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덜했음.







* (좌) 생물보안법 발의 전후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변화 : 중국 CRO기업 신뢰도(-32%), 중국 CDMO기업 신뢰도(-49%), 중국 바이오제약기업 신뢰도(-36%)

* (우) 생물보안법 발의 전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변화 : 중국 CRO기업 신뢰도(-21%), 중국 CDMO기업 신뢰도(-31%), 중국 바이오제약기업 신뢰도(-19%)

- 생명과학기업의 26%는 현재 중국 공급업체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, 2%만이 실질적인 변경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. 다소 놀랍게도, 생명과학 기업의 11%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이 법 통과에 대한 아직 불확실한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.
- 그렇긴 하지만, 기업들은 이미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. 생명과학 기업의 68%는 법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, 공급업체를 다각화할 계획이며, 기존 파트너에 대한 배경 조사(신원 조회)를 추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음.
-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며,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사들은 상용화를 고려하고 있었음. 임상 연구, 개발 및 제조 분야에 있어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, 응답자의 약 30%는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.

<미국 생물보안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주요 응답 결과>

구 분	응답 결과
<p><중국 기업 신뢰도 변화></p>  <p>Confidence in partnering with Chinese companies</p>	<p>▷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데 있어서의 신뢰도가 30~50% 하락함. 특히, CDMO 분야 하락도가 가장 컸음.</p> <p>▷미국 이외 지역 기업들의 경우 중국 기업의 협력 신뢰도는 20~30% 하락함.</p>
<p><현재 운영에 미칠 영향></p>  <p>Impact on current operations</p>	<p>▷생명과학 기업의 26%는 현재 중국 파트너사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. 그러나 실제 생물보안법안에서 언급된 중국기업과의 관계를 변경한 기업은 아직 2%에 불과했음.</p> <p>▷여전히 생명과학 기업의 11%는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함. 이는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.</p>
<p><사전에방적 조치></p>  <p>Precautionary actions</p>	<p>▷생명과학 기업의 68%는 법률 및 규정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, 파트너사를 다양화하고, 기존 파트너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</p> <p>▷아시아기업의 13%만이 중국 이외 국가로 파트너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, 기존 파트너사의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는 기업은 38%에 달함.</p>
<p><향후 파트너십 영향></p>  <p>Likelihood of future partnership</p>	<p>▷미-중간 디커플링 위협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,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기업은 제품 상용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.</p> <p>▷응답자의 약 30%는 향후 3년간은 중국기업들이 제공하는 임상 연구,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.</p>

<참고자료> Impact of the US BIOSECURE Act on Biopharmas, Contract Services and Investors, LEK, 2024.7.2